

스마트 팜 관련 스크랩

2019. 5. 12. ~ 5. 18.

페이지	제 목	비 고	유형
2	농식품부,스마트팜 청년교육생 모집	농축유통신문	인터넷
3	식물 생체정보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	news1	인터넷
4-5	[기고]세계최고 농대의 스마트팜이 부러운 3가지 이유	매일경제	인터넷
6-8	[스마트팜]미래농업 ‘스마트팜’ 이끌 청년 모집	데일리 스포츠한국	인터넷
9-10	아그로파낙스,스마트팜 재배기술로 건강채소 새싹삼 재배	시선뉴스	인터넷
11-12	[르포] “1000평 모내기예 30분” …SKT 자율주행 이앙기, 스마트팜 ‘성큼’	헤럴드경제	인터넷
13-14	UN과 손잡은 KT, 이번에는 스마트팜	it조선	인터넷
15-16	청년 창업의 꿈, 스마트팜으로	한국영농신문	인터넷
17-21	[창간특집]농업의 미래 싹 틔울 청년농부, 스마트농법에 반하다	전민일보	인터넷
22-23	농업과 클라우드 접목해 ‘창농’ 기반 닦는다	동아 사이언스	인터넷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교육생 모집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9.05.17 11:17 | 댓글 0

| 총 104명, 모집기간 5월 13~7월 12일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미래농업을 이끌고 갈 스마트팜 청년교육생 104명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추진 중이며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이며 전공에 관계없이 취·창업농 희망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되면 교육생은 최대 20개월 동안 실습 위주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기간 동안 숙식도 제공받게 된다.

신청서류를 토대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혁신밸리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스마트팜 현장실습, 경영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선택한 재배 작목과 영농지식 수준에 따른 이론교육(입문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실습과정 6개월을 수강한 후, 경영실습교육 과정에서는 혁신밸리내 경영실습용 스마트팜 온실에 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경영실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게시돼 있으며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와 보육센터 연락처(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063) 290-6415, 경북 농업기술원 053) 320-028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물 생체정보 기반 스마트팜 시스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19-05-16 15:20 송고

기사보기

네이버의견

트윗

인쇄

+ 확대

- 축소



16일 서울 관악구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8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생체정보 기반 스마트 수경재배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19일 까지 서울 관악구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도시농업과 건강'을 주제로 생태순환 텃밭, 텃밭 콘테스트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19.5.16/뉴스1

[기고] 세계최고 농대의 스마트팜이 부러운 3가지 이유

입력 : 2019.05.17 00:05:01

농업 분야 세계 최고 대학인 네덜란드 바헤닝언대가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자율형 스마트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재배 전문가가 직접 온실 내부 환경과 급수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인공지능(AI)이 온실 환경을 제어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작물 생산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비교하는 세계 최초의 경진대회였다. 대회 결과 마이크로소프트(MS) 연구원 등이 멤버로 포함된 AI팀 소노마(Sonoma)가 우승했다. 하지만 중국 텐센트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아이그로(iGrow) 등 다른 AI팀은 재배 전문가팀이 얻은 결과에 못 미쳤다.



대회를 통해 AI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셈이다. 경진대회를 보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부럽게 느껴졌다. 먼저 경진대회에 참여한 팀들이 다국적·다학제 분야의 기업·대학·연구소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경진대회 우승팀 구성원을 살펴보면 MS 엔지니어, 바헤닝언대·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자로 구성돼 있다. 이는 스마트팜 분야에 다양한 산학연 주체가 참여해 연구개발(R&D)과 실증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생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AI 등 농업 분야에 대한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적용하는 데 적극적인 부분이다. AI를 적용한 지능형 환경제어 기술이 실제 스마트팜 농가에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실증과 보완이 요구된다. 따라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많은 기업이 단기 비용 문제로 머뭇거리기 쉽다. 하지만 해외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신기술 도입·적용에 대한 R&D 투자가 기업·대학·연구소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러웠던 건 바헤닝언대가 자체 스마트팜 연구소에 팀이 별도 환경 제어 실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대학과 연구소도 다양한 스마트팜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 경진대회 과정에서 봤던 것처럼 다양한 팀이 동시에 각자 기술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는 미흡하다.

작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진행 중이다. 혁신밸리에는 청년을 교육하는 공간과 함께 농업 전후방 기술혁신을 위한 실증단지도 만든다. 실증단지를 공공실증과 자율실증구역으로 구성해 국내 스마트팜 연구를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연구소·대학·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부터는 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국내 스마트팜 기술·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혁신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구성원의 단순 참여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융합과 농촌진흥청과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간 협업 그리고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융복합 분야 연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에 전문 재배 기술을 확보한 농가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모든 기술·노하우가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때 비로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농업 분야 기술은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많은 실증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 최신 농업 기술과 비교했을 때 국내 농업 기술이 현재는 열위에 있더라도 각 분야 장점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전환 시점에서 국내 농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나노 기술 등으로 기술 범위와 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앞으로 스마트팜 혁신 주체들이 혁신밸리를 통해 마음껏 소통하고 공유하며 협업해 세계 수준의 신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형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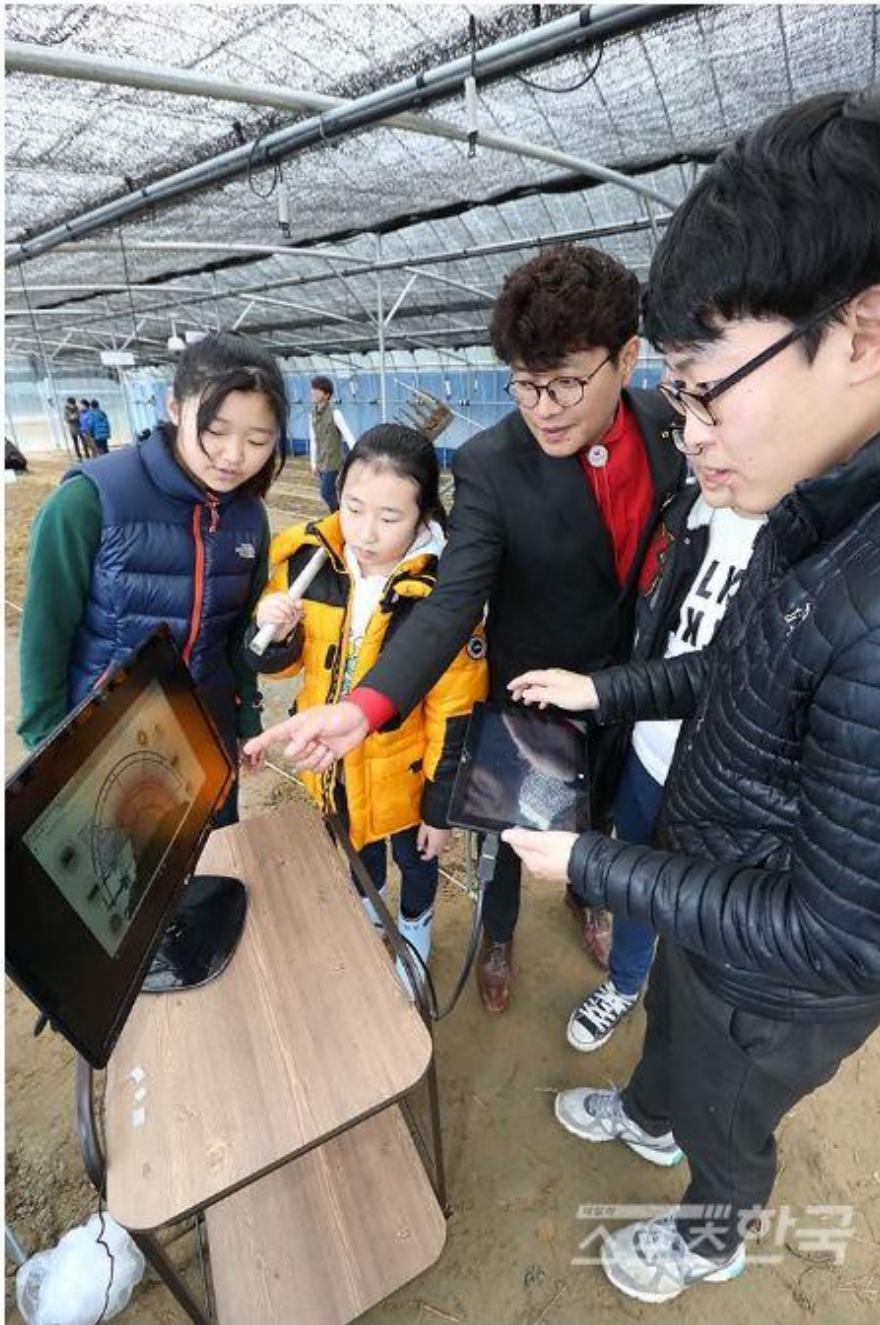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팜] 미래농업 '스마트팜' 이끌 청년 모집

농식품부, 1년 8개월 과정 후 1년 경영실습..접수마감 7월 12일

박상건 기자 pass386@daum.net 2019.05.15 16:52 댓글 0

[데일리스포츠한국 박상건 기자] 스마트팜이 본격화 길을 걷고 있다. ICT 솔루션을 제공해 농가 노동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비닐하우스 제어를 통한 생장환경 최적화, 관수 공급 자동화, 영상 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영지초등학교체원형 스마트팜(사진=KT제공)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중인데 전공에 관계없이 취업이나 창업
능 희망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생은 선택한 재배 작목과 영농지식 수준에 따른 이론교육(입문교육)과정 2개월과 현장실습과정 6개월을 수강한 후, 경영실습교육 과정에서는 혁신밸리내 경영실습용 스마트팜 온실에서 자기 책임 하에 1년간 경영실습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장실습과 경영실습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으며, 해외컨설턴트 초청 강의를 통해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혁신밸리내 스마트팜 장기임대 온실(성적우수자, 최대 5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및 농신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의 경우는 경영실습과정(1년)시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육센터별로 전북은 보육생 홈스테이 지원, 경북은 청년농업CEO 자금지원 등 지역별 사업들과 연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계화된 교육과 현장실습, 경영실습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확대와 청년들의 농업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를 참고하면 된다. 스마트팜 콜센터 전화는 1522-2911, 보육센터 연락처는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063-290-6415), 경북 농업기술원(053-320-0281).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래농업 #스마트팜 #청년농식품부 #교육생모집

아그로파낙스, 스마트팜 재배기술로 건강채소 새싹삼 재배

보도본부 | 이도 기자 승인 2019.05.16 15:36 댓글 0

+ |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은 고령화하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6차 산업 (1,2,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농가에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선도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법인 아그로파낙스는 스마트팜을 통한 건강채소 새싹삼 재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그로파낙스는 고밀도 단열재를 이용한 재배 하우스 시스템을 구축, ICT를 접목한 냉난방 제어 시스템과 무균처리, 자동급수, 미네랄을 이용한 물 관리 시스템, 환기 및 습도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새싹인삼 재배 뿐만 아니라 기타 작물 재배에도 유용하다.



새싹삼은 1~2년생 어린 삼을 스마트팜 시설에서 약 3주 정도 재배해 잎과 줄기, 뿌리를 통째로 먹는 건강채소이다. 연구에 따르면 뿌리만 먹는 인삼과 달리 잎과 줄기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진세노사이드(인삼에 있는 사포닌 성분) 함유량이 다른 삼과 비교했을 때 수배 더 많이 검출되었으며 6년근 인삼에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삼은 농약 때문에 잎과 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새싹삼은 자연친화적인 담수경재배로 뿌리는 물론 잎과 줄기까지 통째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수경재배는 농약성분을 분해하여 잔류농약을 100%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춘 재배법으로,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하고 수소이온 생성을 통해 2차 환경오염 없이 무농약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싹인삼 재배를 가능케 한다.

또한 새싹삼은 재배기 안착 후 약 22일 후면 수확이 가능하다. 고가의 인삼을 짧은 기간에 속성 재배 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고 무농약이기에 수출도 가능하다. 게다가 식용뿐만 아니라 화장품, 제약 건강식품, 건강음료 회사에서도 재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새싹삼 먹는 방법은 다양하다. 새싹크기가 크지 않고 먹기가 간편해 씹 채소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삼계탕이나 추어탕과 같은 건강보양음식에 넣어 함께 먹기도 한다. 실제 대형식당에서의 주문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그로파낙스의 김태선 공동대표는 “아그로파낙스 시스템이 귀농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새싹삼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 재배하는 분들은 좋은 제품을 공급하여 생활의 여유를 찾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올해의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르포]"1000평 모내기 30분"...SKT 자율주행 이앙기, 스마트팜 '성큼'

기사입력 2019-05-15 10:12



자율주행 이앙기에 탑승한 농부는 이앙기가 자율주행 하는 동안 모판 분배를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부와아앙~”

커다란 이앙기에 올라타 힘차게 시동을 건다. 파릇파릇한 모판을 줄줄이 세팅하고, 여분의 모판도 넉넉하게 실어준다. 첫 번째 라인만 사람이 직접 이앙기를 운전해 모를 심고나면, 다음 라인부터는 핸들에 손을 덜 필요 없이 이앙기가 알아서 라인에 맞춰 움직이며 모를 심는다. 과거에는 십 수 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허리를 굽혀가며 모내기를 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이앙기로 1000평 논도 30분 만에 똑딱이다.

SK텔레콤이 국내 1위 농기계 제조사 대동공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이앙기를 개발, 상용화했다. SK텔레콤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기기다. 국내서 자율주행 농기계가 상용화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논에 직접 방문했다. SK텔레콤과 대동공업은 이날 약 1400 평 크기의 논에서 자율주행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 시연을 진행했다.

자율주행 이앙기는 농부가 별도로 기계를 조작하지 않아도 못자리를 따라가며 모판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농기계다. 이번에 SK텔레콤과 대동공업이 내놓은 자율주행 이앙기는 RTK를 이용해 작업의 정밀도를 대폭 높인 기기다. 모를 심는 동시에 비료나 농약을 살포할 수도 있다.

RTK는 위성항법시스템 GPS와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망 LTE-M에서 받은 위치정보를 활용했다. 기존 GPS의 작업 정밀도가 수m 수준이었다면 RTK는 작업 정밀도가 최고 2.5cm에 달한다. SK텔레콤의 RTK 모듈의 가격은 기존 위치측정 솔루션 대비 1/10인 100만원대다.

김종연 SK텔레콤 ICT기술센터 매니저는 "RTK는 인공위성 전파수신,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준국 등에서 1초마다 데이터를 수신함으로써 위치정보 오차를 최대한 줄여 최대 2.5cm의 정밀도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RTK를 활용함으로써 농부는 제대로 모가 심기는지 확인하거나 줄어든 모판을 보충할 수 있다. 대부분 이앙기 작업은 2인1조로 진행되나, 자율주행 이앙기를 이용하면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날 1400평 논이 모내기를 끝내는 데는 약 40~50분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SK텔레콤은 1000평 논에 모내기를 하는데 약 3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속도는 초속 1.8m다. SK텔레콤은 자율주행 농기계로 농업 생산성도 대폭 높여 고령화,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직진을 하며 모를 심을 때에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앙기를 돌려 다음 못 자리에 맞춰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 또, 일부 논바닥이 고르지 않은 부분에서는 다소 모내기 줄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자율주행 이앙기의 가격은 3800만원 정도다. 현재 국내 농기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일본산보다 450만원 가량 싸다. 성능 역시 RTK를 탑재함으로써 GPS를 탑재한 일본산보다 더 우수하다. IoT 통신요금은 SK텔레콤 LTE-M 요금제를 활용하며 월 1만원이다. 지난 3~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자율주행 이앙기는 현재 전국에 20대 가량 팔린 상태다.

김성일 SK텔레콤 IoT/데이터 사업단 매니저는 "대동공업과 협업해 이앙기 외에도 콤바인, 트랙터 등으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농업을 넘어서 건설·기계, 물류·항만, 보행용 로봇 분야에도 RTK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UN과 손잡은 KT, 이번에는 스마트팜

류은주 기자

입력 2019.05.14 11:01

국제연합(UN)과 손잡고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KT가 이번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세계 빈곤 문제 퇴치에 나선다.

KT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14일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ICT 기반 세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황창규 KT 회장, 호세 그라치아노 다 실바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KT 광화문 사옥 전경/ KT 제공

1945년 10월 설립된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는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을 보유한 글로벌 식량 문제 담당 UN 산하기관이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가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133개의 글로벌 지역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194개 회원국 대상 농업 및 식량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통한 농업 기술 혁신 및 민관협력을 추진 중이다.

KT와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통한 글로벌 식량 문제 공동 해결 ▲KT의 ICT 기술과 데이터 혁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 기술 혁신 공동 연구 ▲글로벌 청년 대상 디지털 농업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공동 추진 등에서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글라데시 기가아일랜드 개소 등 KT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보인 유엔식량농업기구 관계자가 2018년 8월 KT 본사를 직접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KT는 앞서 2016년 글로벌 리더 1000명이 참여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회의에서 KT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감염병 우려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SMS 발송을 통해 국가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GEPP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해외 통신사들도 속속 GEPP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KT는 세계보건기구(WTO)와도 협업해 여행자들에게 감염병 위험을 안내하는 앱을 개발 중이다.

KT 한 관계자는 "중동 등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스마트 팜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다"며 "온습도 등의 통계를 저장하는 빅데이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의 꿈, 스마트팜으로

농식품부, 스마트팜 장기 보육 과정 교육생 104명 모집

미병로 기자 승인 2019.05.14 10:56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정부 혁신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이며 미래 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청년 교육생 10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전공에 관계 없이 취·창업 농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대 20개월 동안 실습 위주 장기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 기간 동안 숙식도 제공받게 된다.

신청 서류를 토대로 1단계 서류 심사, 2단계 면접 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혁신 밸리 내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센터(이하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 기초 이론부터 경영 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8개월)을 교육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 기술, 스마트 기기 운용, 온실 관리, 경영·마케팅, 스마트팜 현장 실습, 경영 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선택한 재배 작목과 영농 지식 수준에 따른 이론 교육(입문 교육) 과정 2개월과 현장 실습 과정 6개월을 수강한 후, 경영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혁신 밸리 내 경영 실습용 스마트팜 온실에서 자기 책임하에 1년간 경영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9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팜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 기술, 스마트 기기 운용, 온실 관리, 경영·마케팅, 스마트팜 현장 실습, 경영 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선택한 재배 작목과 영농 지식 수준에 따른 이론 교육(입문 교육) 과정 2개월과 현장 실습 과정 6개월을 수강한 후, 경영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혁신 밸리 내 경영 실습용 스마트팜 온실에서 자기 책임하에 1년간 경영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장 실습과 경영 실습 과정에는 스마트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으며, 해외 컨설턴트 초청 강의를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혁신 벨리 내 스마트팜 장기 임대 온실(성적 우수자, 최대 5년) 우선 입주, 스마트팜 종합 자금 신청 자격 부여 및 농신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의 경우는 경영 실습 과정(1년) 시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보육 센터별로 전북은 보육생 홈스테이 지원, 경북은 청년 농업 CEO 자금 지원 등 지역별 사업들과 연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에 게시되어 있으며, 스마트팜 콜 센터와 보육센터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보육 사업을 통한 체계화된 교육과 현장 실습, 경영 실습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확대와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청기간 :** 2019. 6. 10(월)~7. 12(금)

***지원대상 :**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 만 18세이상~만40세 미만(주민등록상 '79. 1. 1~'01. 12. 3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교육인원 : 총104명(보육센터별 52명, 경북상주·전북김제)

***교육종목**

- 경북: 딸기, 토마토, 멜론, 오이
- 전북: 갈구상추, 아스파라거스, 오이, 딸기, 가지

***교육내용**

- 입문과정(150시간 이상) : 청년 지식, 투자유치 컨설팅, 경영·마케팅, 정착 지원, 온실 설계·관리, 양수분 급배액, 양액재배, 스마트팜 운영관리, 해외전문가 특강
- 교육형실습(6개월) : 보육센터 실습장 등을 활용하여 6개월간 현장 실습하며 경영숙적, 컨설팅 현장지도, 우수 스마트팜 사례 벤치마킹 등
- 경영형실습(12개월) : 자기 책임하에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경영실습 온실을 제공,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도 교육

***지원방법**

-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스마트팜 교육-보육사업 신청' 클릭하여 신청

***신청발표**

- 2019. 7. 31(수)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공지 및 개별통보

***지원내용**

- 교육비 무료
- 교육 수료생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500평/인)
- 교육 수료생 대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지원 가능
- 개인별 실경험적 100평 이상 규모의 경영실습 온실 제공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내용문의**

-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 www.smartfarmkorea.net
-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063)290-6415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053)320-0281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정부 혁신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이며 미래 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청년 교육생 104명을 모집한다. 사진은 2019년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센터 교육생 신청 안내.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창간특집]농업의 미래 싹 틈을 청년농부, 스마트농법에 반하다

최적 환경설정 인공지능으로 소득제고

이지선 기자 | letswin7@daum.net



▲ 스마트팜

▲ 스마트 팜, 농촌의 활력 그리고 힐링이 되다

스마트 팜(Smart Farm)은 비닐하우스·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지능화형 농장이다. 노동력을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력은 증대시키는 획기적 변화라는 의미에서 제3의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스마트 팜은 시설 내·외부에 설치된 각종 센서와 장비를 기반으로 빛과 수분, 양분, 온도, 습도 등 적합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는 ‘똑똑한 농장’이다. 농장주는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농장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작물의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센서가 직접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작물의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다보니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 농약을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현저히 적다.

전북도에 따르면 실제 스마트 팜 도입 농가는 미 도입 농가보다 생산량 27.9%p, 일인당 생산량 40.4%p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대로 고용노동비와 작물의 병해충·질병은 각각 15.9%p, 53.7%p씩 줄어들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근무 환경과, 농업이 주는 치유의 힘은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 팜이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도내 농업 현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전통 농업에서 가장 중시하던 노동력은 이제 첨단 과학 기술이 대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 팜 육성은 인구 문제로 고심에 빠져 있는 전북 삼각농정 사업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187개 농가에 60억 원을 지원해 94ha의 스마트 팜을 구축했다.

전북도는 스마트 팜과 관련한 체계적 교육을 추진해 청년농업인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시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미스터 딸기 팜 강형진 대표가 귀농을 준비할 때 부터 써오던 일지를 보여주고 있다.

▲ 귀농 후 스마트 팜으로 인생 2막 시작한 미스터 딸기 팜 강형진 대표
“가장 좋은 점은 몸이 편해졌다는 거죠. 생산량이 2.5배 더 많은 건 덤 이구요”

강형진(48) 미스터 딸기 팜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일터인 김제시 백산면의 스마트 팜 딸기 농장을 찾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림새가 농부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가볍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다.

하얀 천이 깔린 바닥은 여름은 샌들을 신더라도 무방해 보였다. 어린아이 주먹만 한 크기의 딸기들이 사람 허리 높이의 행잉베드에 주렁주렁 달려 자라고 있었다. 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강 대표의 작은 행동과 말마다 딸기 농사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왔다.

사실 그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처음부터 농사꾼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지만, 명문대를 나와 줄곧 서울 생활을 해 왔던 강 씨가 ‘미스터 딸기팜’이라는 공간의 대표로, 김제지역 농사꾼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강 씨는 연세대학교에서 이공계열인 생화학과를 전공했다. 이후 10년 간 서울에서 요가학원을 운영하다 지난 2010년 고향으로 귀농해 농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귀농 교육을 받다 맺은 인연으로 지난 2016년에는 45세의 늦깎이 신랑이 됐다. 강 씨와 귀농 생활을 함께하기로 한 반쪽 이정현 씨는 서울에서 잘나가는 회계사로 근무했다.

강 대표는 귀농 후 딸기를 재배할 목적으로 기술센터, 농식품인력개발원 등에서 영농기술을 습득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2310㎡ 규모의 보급형 연동하우스를 구축해 딸기 농사를 시작했다.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면서 충분한 영농기술을 습득했기에 딸기 농사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이론과 달리 온도, 습도, 광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부족 등으로 3년차까지 실패가 계속되다 4년차가 돼서야 조금씩 사정이 나아졌다.

그럼에도 생산량은 선도 농가 대비 50~60% 수준에 그쳤다. 강 대표는 선도 농가의 시설과 온실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했다. 결국 지난 2017년 2640㎡ 규모의 온실을 기존 시설 옆에 신규로 구축하고 ICT 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팜을 완성했다.



강형진 미스터 딸기팜 대표가 스마트 팜 업계 선도기업인 HortiMax사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 대표는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하기 이전 먼저 시작했던 기존시설도 아직 함께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해 두 곳의 생산량을 직접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다. 기존시설의 m^2 당 평균 생산량이 2.08kg 이던 것에 비해 스마트 팜 시설은 4.92kg 으로 2배 이상 많았다.

강 대표는 “분명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품종의 딸기를 키웠는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아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 스마트 팜 대신 기존 시설에만 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기존시설에서 일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다.

스마트 팜에서 나온 딸기가 단순히 생산량만 많았던 것은 아니다. 가장 좋은 품질인 특상품의 비율이 72%로 매우 높고 낮은 품질의 딸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좋은 딸기를 많이 생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소득도 크게 증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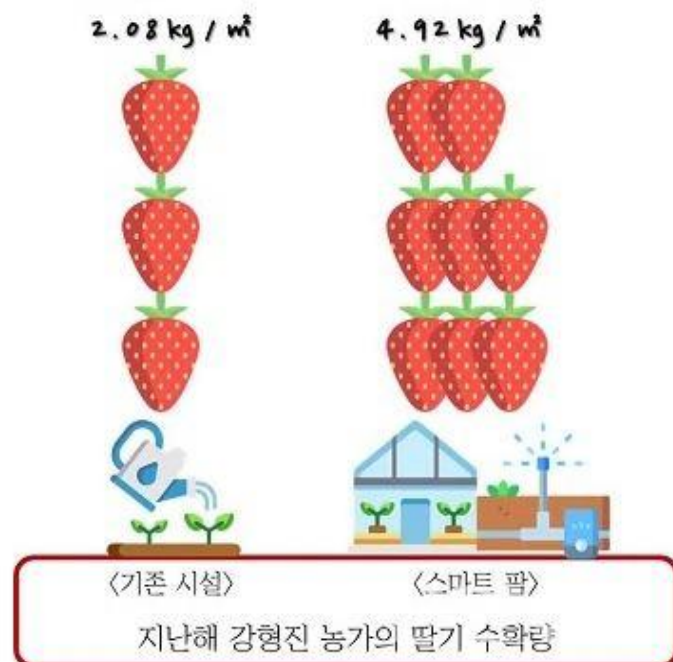
강 대표는 지난해 스마트 팜에서만 생산량 1만8600kg을 수확해 1억3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 대표는 “스마트 팜은 생산성 증가 뿐 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노동력에만 의존했던 온실 관리에서 해방시켜주는 고마운 시설이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스마트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작물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까지 가능해졌다”며 “여유시간을 통해 사회 활동이나 다른 영농작업을 할 수 있게 돼 귀촌 생활도 더 유쾌하고 풍성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우리 마을 막내인데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10살 차이가 넘게 나는 60대다”면서 “기술 연구가 잘 이뤄져, 보다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제품이 개발 돼 많은 청년인들이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끝으로 강 대표는 스마트 팜 도입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스마트 팜을 설치해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몸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선기자



▲ 강형진 미스터 딸기 팜 대표의 2018년도 딸기 생산량은 스마트 팜이 기존 시설보다 2.4배 더 많았다.

농업과 클라우드 접목해 '창농' 기반 닦는다

2019년 05월 15일 14: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데이터를 어디서나 접속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혁신사례를 만들기 위한 범부처간 협력사업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19년 범부처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혁신사례 창출'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 전략' 중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부처가 가진 정책 및 산업분야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이를 활용하는 '올 댓 클라우드'(All@Cloud) 전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농업 혁신과 기업 연구개발(R&D) 혁신 2개 분야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정책 관련 데이터에 클라우드를 접목해 경영과 재배관리, 농업 분야 창업을 뜻하는 창농을 지원한다. 기업 R&D 분야는 기업을 대상으로 R&D 기획과 관리,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는 플랫폼과 연계해 AI, 빅데이터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한 후속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NIPA 사업성과관리시스템(<https://smart.nipa.kr>) 내 과제접수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클라우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기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미 개발된 신기술들과 쉽게 접목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에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기업 R&D가 제품 혁신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적용분야	과제명	주요내용	수행기간	총 사업비
농업	클라우드 기반 농업 혁신분야 SW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플랫폼+ 핵심서비스 1개 이상 구축	'19.7~'20.11	10억원
기업 R&D	클라우드 기반 기업 R&D 혁신분야 SW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플랫폼+ 핵심서비스 1개 이상 구축	'19.7~'20.11	1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